■ 광주은행 민영화 이후 첫 행장 김 한 회장 선임

전북은행과 연계 '규모의 경제' 실현 기대

社主 행장 처음 …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노조 "JB금융, 지역민에 협조·이해 구해야"

광주은행 민영화 이후 첫 행장에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광 주은행 노조가 신임 행장 출근저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에서 는 광주은행 46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주 (社主)가 행장으로 취임하고, 한 가족이 된 전북은행과 연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광주은행의 도 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은 1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김 한 JB금융지주 회장을 광주은행 상임이 사(사내이사)로 추천할 것을 결의했다. 광 주은행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26일 주주 총회를 열어 김 회장을 광주은행장으로 최 종 선임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JB금융지 주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자회사 CEO후 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회장을 광주은 행장 후보로 선정하고 광주은행에 통보했 다. 김 회장이 겸임하고 있던 전북은행장 후임에는 임용택 우리캐피탈 사장이 선정

광주은행은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 광주은행장을 겸임하도록 추천한 것은 광 주은행이 JB금융그룹의 주력회사인 만큼 지역민과 광주·전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주의 역량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의 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민영화 이후 첫 행장에 자행(광주은행) 출신 인사를 기용할 것을 요구해 온 광주 은행 노조는 김 회장의 광주은행장 선임이 구체화한 데 반발, 주주총회 이후 신임 은 행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강대옥 노조위원장은 "자행출신 행장 선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지 역민과 광주은행 노조원의 자존심에 상처 를 입게 돼 안타깝다"며 "오는 11월 26일 주총 이후 신임행장 출근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 은 그러나 "광주은행 46년 역사상 사주가 직접 행장으로 취임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 음으로, 낙하산 인사나 관치가 아닌 것은

다행"이라고 긍정 평가하고 "JB금융이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노조 및 지역 민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한다면 광주은행 과 JB금융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새롭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기계공 학과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학을 공 부했으며 파마그룹(PAMA Group) 서울 대표, 메리츠증권 부회장, KB금융지주 사 외이사를 역임했다. JB금융지주의 대주주 인 삼양그룹 창업자 김연수씨의 손자이자 김상협 전 국무총리의 장남으로 지난 2010 년 전북은행장으로 부임한 이후 7조원이던 은행 자산을 4년 만에 40조원으로 불리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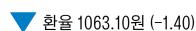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1925.91 (-3.34)



코스닥 545.51 (+1.46)



구산건설, 공공임대 '용봉동 도나우타운' 228가구 분양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옆에 들어서는 '용봉동 도나 우타운'(시행사 심산건 설·시공사 구산건설) 견 본주택이 17일 문을 연 다. 이 아파트는 지하 1 층~지상 17층 규모이 며전 가구 남향 배치로, 전용면적 57 m²(발코니

확장형) 228가구가 공급된다. 〈투시도〉 최근 광주지역에 임대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도나우타운은 10년 공공 임대아파트로 분양돼 수요자들의 관심 을 사고 있다. 아파트 인근은 패션의 거 리와 비엔날레 공원, 중외공원, 용봉생 태습지공원 등 생활시설은 물론 비엔날

레 전시관, 민속박물관, 국립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갖춰져 입지에 대한 평가가 높다. 또 향후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들 어올 예정이다.

입주민에게 편리한 시스템과 넓고 쾌

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대 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주방 및 욕실 엔 천정 매립형풍향시스템이 들어선다.

이 외에도 안방 건식욕실 시공과 붙박이

장 설치, 홈오토 시스템, 주출입구 차량

통제 시스템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

안 시스템이 설치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6년 5월이며, 견본 주택은 북구 중흥동 전대정문 사거리 (북구 중흥동 323-5번지)에 있다. 문의 (062-264-7789).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 33.6% ↑ 전국서 가장 많이 올라

9월말 기준 광주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3.6%나 올라간 것으로 나 타났다. 올해 들어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 으로 상승하고 있다.

15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9 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3.3㎡당 광 주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은 780만2000원으로, 전달(762만 2000원)보다 180만원, 전년 동기 보다 1963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 사됐다.

특히 2012년을 100으로 놓은 분 양가격지수도 9월 말 기준 114.6 으로, 전년 동기(85.7)보다 28.9포 인트(33.6%)나 뛰어올랐다.

광주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올 해 들어 대규모 단지가 잇따라 분 양되면서 전체적인 분양가를 끌 어올린데다, 분양가가 높은 도심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 면서 상승 효과를 불러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 양가격은 845만9000원으로 전달 (839만5000원)보다 0.8% 상승했 다. /임동률기자exian@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 라



현대·기아차 'R&D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

15일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2014 R&D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이 신기술이 도입된 차량 내부를 둘러보고 있 다. 〈기아차 제공〉

광주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 1700만원 ↓

전셋값 상승 빨라 서민부담 여전

광주지역 아파트의 전세 재계약 비용(2 년치 전셋값 인상분)이 2년 전보다 1700만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재 계약 비용이 줄었다고 해도, 소득보다 전 셋값 상승이 더 빨라 서민의 전세비용 부 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 세를 재계약해야 하는 광주지역 아파트 거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10월 지불한 재계약 비용 2866만원 보다 1684 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재계약 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최근 2년 치 전셋값 상승폭이 그 전 2년치 상승폭 (2010년 10월 대비 2012년 10월 가격)에 비 해 감소했다는 의미다. 광주의 전세 재계 약 비용이 준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분양된데다 입주도 늘어나면서 전 셋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것이 원인이다.

大山프리모ア世

해 줄었다고 해도 이미 오른 전셋값에서 추가 오른 것은 소득 증가분보다 크기 때 문에 서민들의 전세비용 부담은 여전하 다. 늘어난 전세 재계약 비용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해 대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 광주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10년 10월 7998만원이었으나 2012년 10 월엔 1억 863만원으로, 올 10월엔 1억2045 만원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당분간 전셋값 상 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잠시 소강상 태를 보였더라도, 전세 재계약 비용이 다 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엠리밋 광주아울렛점 오늘 상무지구에 오픈

'2535 세대'를 위한 신개념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밋'(㈜MEH·대표 한철호) 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아울렛 직영 매장인 '엠리밋 광주아울렛점'을 16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엠리밋 광주아울렛점은 광주흑석점에 이은 두번째 직영점으로 첨단지구·수완 지구와 함께 광주 메인상권으로 자리매 김한 상무지구 광주아울렛 1층에 문을 연다. 광주아울렛은 시내 접근성과 쾌적 한 주차시설, 다양한 먹거리 시설이 입점 해 있어 가족단위 고객과 실속 구매를 원 하는 젊은층이 쇼핑하기 편리한 곳이다.

엠리밋 광주아울렛점은 올 시즌 신상 품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이월상

™LIMITED

품으로 고객을 모은다는 복안이다.

엠리밋은 이번 광주아울렛점 오픈을 시작으로 광주 지역 젊은 소비자들에게 확고한 영(Young) 아웃도어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 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박용학 엠리밋 사업 부장은 "광주 지 역에 두번째 직영점으로 오픈한 엠리밋 광주아울렛점은 지역 안테나 샵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8월 고용동향, 광주 '개선' 전남은 '악화'

호남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4년 8 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고용률은 58.9%로 전년 동 기에 비해 1.6% 포인트 상승했다. 취업 자 수(74만1000명)는 2만7000명(3.7%) 이 늘었고, 실업률(2.5%)은 0.1% 포인 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전남은 고용률(61.6%)이 0.8% 포인트 하락하고 취업자 수(92만명)는 8000명(-0.9%)이 감소했다.

실업률(2.4%)은 0.6% 포인트 상승했 고, 실업자 수(2만3000명)는 6000명(34. 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원장이수채 011-607-5330

